

'갑질·출판' 광주 보건소장 직위해제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보건소 내에서 흡모임을 갖는 등 물의를 빚은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다.

20일 광주 구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A 보건소장(4급·여)을 직위해제했다.

구청은 감사를 통해 A 보건소장의 폭언·갑질과 전횡을 확인했으며, 시 인사위원회에 보건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조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해당된다.

구청 감사 결과 A 소장은 10여년 동안 부하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 행동 등을 하며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 감사 통해 폭언·공용물 사적 이용 확인 중징계 요구...시 인사위원회서 최종결정

A 소장은 부하 공무원의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폭언을 하고, 서류·불펜으로 사대질을 하거나 책상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소 내 계약직 직원의 지위 등을 비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보건소장의 갑질은 특정 성별과 직렬에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 소장은 올해 수개

월간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출판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A 소장은 집인 보건지소장에게 받은 보안열쇠로 보건지소를 출입하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친구 사이의 의대 동기 5명과 일명 '라인댄스'를 춘 사실을 시인했다.

구 감사부처는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구 인사부처와 시 인사위원회에 전달했다.

구 인사부처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차원에서 A 보건소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A 보건소장에 대한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를 진행한 구 관계자는 "보건소장의 갑질이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건지소 내 흡모임은 공용물의 사적이용에 해당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중징계 요구의 배경을 밝혔다.

서은홍 기자

日서 가상화폐 3종 668억 원어치 또 유출

인터넷상의 가상화폐 교환 사이트 Zair 를 운영하는 '테크뷰로'사(본사 오사키)는 지난 14일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으로 인해 67억엔(668억36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14일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으로 비트코인 등 3종의 가상화폐 67억엔 상당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45억엔 정도는 고객들이 맡긴 것이며 나머지 22억엔 정도가 회사 자산이다.

테크뷰로는 가상화폐의 입금과 출금 등 일부 서비스를 중지하고 금융청 및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사와 50억엔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고객의 자산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크뷰로는 현 경영진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이라며 "신뢰를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 사죄드린다. 무엇보다도 고객의 자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인 조사와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1월에도 '코인 체크 리스'는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회사에서 580억엔 규모의 대규모 유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회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왔는데 테크뷰로사는 고객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신 명령을 받았었다.

美 소프트웨어 회사서 총격...3명 부상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19일(현지시간) 한 총격병이 총기를 발사해 3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출동한 경찰들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회사 사람들은 빌딩에서 황급히 밖으로 달아나거나 건물 안 다른 곳에 숨노라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고 목격자들과 경찰은 말했다.

밀워키 서쪽 145km에 있는 미들턴시의 척 폴크 경찰서장은 오전 10시 25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WTS패러다임사 빌딩에는 총격사건 진행중이라는 경보가 내려졌으며, 경찰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총격은 단독범행이며 공범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용의자에 대한 상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나 공격 경위도 아직 조사중이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과 목격자들을 스톱바스에 태워서 인근 호텔로 옮겨놓고 면담 조사를 하고 있다.

WTS패러다임사에서 일하는 기업분석가 주디 라베르스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중 "누군가 목재 판자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엄청난 굉음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빌딩에서 급히 달아나 밖에 주차된 승용차 뒤에 숨었다고 말했다. 이 빌딩의 출입문은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빨리 달렸다. 달아날 것인가 숨을 것인가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동료직원 한 명이 총탄이 무사했지만 말했다.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우리는 모두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고, 사이가 좋은 그룹이다" 라고 말했다.

메디슨의 2개 종합병원은 이 총격으로 19일 한 낮에 치료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며 1명은 중태, 2명은 중상, 1명은 상태를 알 수 없고 다섯 번째 환자는 자력으로 걸어돌아와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찰 수색 결과 빌딩안에 그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다.

아동 성추행 의심 佛가톨릭 사제 숨진채 발견

프랑스에서 한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30대 성직자가 숨진채 발견됐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망한 성직자 장 밥티스트 세베(38)는 전날 프랑스 북부 도시 루앙에 있는 교회에서 발견됐다. 그는 이 지역의 한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부적절한 행동과 성추행 피해를 입고 주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제의 아동 성추행은 지난 25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요인 중 하나다.

지난 8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는 70년 동안 300명이 넘는 성직자들이 100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프랑스에서는 필립 바르바랭 추기경이 1980년 리옹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카웃 소년들에 대한 사제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내년 1월 재판을 받는다.

뉴스

교통사고 사망자 많은 지역 도로 대대적 개선 행안부, 교통안전시설 확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지역 생활권 도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88%가 지자체 관리 대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4188명 가운데 77%가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과 어린이·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 생활권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다.

올해 대비 2.5배 수준인 총 566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대상지역도 올해 331개소에서 858개소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행안부는 보호구역으로 미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추가 지정하고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351개소)한다.

뉴스



어떤 송편이 이쁘지요?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나흘 앞둔 20일 전북 전주시 원산구 교통원광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송편을 만들어 환하게 웃고 있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 명단 허위로 만들어져

한국문화예술위, 명단 사실과 다를 경우 전액 환수 방침

지난 8월 폐막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명단이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원회는 조작된 서류를 제시해 기업체 등에서 지정 기부한 1억 3000만원을 받아 챙겨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열린 제6회 동물영화제는 시가 7억 1000만원을 들여 모든 행사를 주관·주최해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영화제를 같이 해왔던 집행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새로 선정해 일을 맡겼다"며 "올해는 집행위원회 없이 행사를 치렀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올해 기부금을 받은 일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였던 일부 위원들이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라는 단체명을 새로 만들어 등록하고 지난 4월 기부금 1억 3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임기가 종료된 집행위원 22명의 이름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자료를 근거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해 집행위원으로 돼 있는 A씨는 "영화제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받아 몇사람이 나눠먹기 식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며 "난 위원이 아닌데 왜 이름이 기재돼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집행위원으로 적혀있는 순천대 교수와 순천시의회, 공무원 등 대다

수들도 "작년에 임기가 이미 끝났고 집행위원이 아니다"며 "올해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자병으로 숨진 B씨도 집행위원으로 올라가 있는 황당할 일도 있다.

이들은 "예전 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법인을 만들고 기부금을 몰래 받아간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도대체 1억이 넘는 기부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들이다.

김진호 집행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집행위원회는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다"며 "위원들이 누군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집행위원회 위원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부금이 잘못 내려간 만큼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